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한

기도 묵상집

다락방



1이기도 묵상집은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해
다락방의 스태프가 준비했습니다.

이 묵상집의 2024년 저작권은 다락방 (The Upper Room Inc. 1908 Grand Ave., Nashville, TN 37212-2129, U.S.A.) 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표지 디자인: 맥켄지 베이커
표지 사진: 파올로 니콜레요

<다락방> 매일 묵상집 구독 (인쇄 혹은 온라인)은 다음에서 하십시오:
UpperRoom.org/subscribe.

<다락방>의 다양한 번역본은 다음에서 보십시오:
UpperRoom.org/international.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Korean Living Bible Copyright © 1985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이 묵상집을 사용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 30초 정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숨을 몇 번 쉬고 편안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성경 읽기: 성경에서 제목 아래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읽은 후에 그 본문에 관해 묵상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이 생기나요?

인용 구절: 인용된 성경 구절은 묵상의 핵심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 인용 구절을 외워 보십시오.

“이야기”: 이 묵상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묵상을 읽은 후 “이 저자의 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기도: 묵상의 글 아래에 있는 기도를 드리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십시오. 묵상을 하며 떠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관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날의 묵상에서 얻은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몇 번 다시 상기하거나,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묵상 후에 이 제목에 대해 계속 기도하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하십시오.

그룹과 함께: 위에 설명된 내용을 그룹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그 날의 묵상과 성찰 질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나눕니다. 그룹 참석자들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나누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합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입니다. 다락방에서는 총회 여정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묵상집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다 더 깊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방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자연을 통해, 예배나 음악이나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묵상집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삶의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한 전 세계의 여러 곳의 저자들이 쓴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묵상집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 총회에 모여 섬기는 동안 차분하고 열려 있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총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교회 전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세계의 여러 장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합감리교회의 일반 규칙인 해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우리의 공통 선교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 줍니다. 언어, 물리적 거리 혹은 기도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일치와 선교와 사역의 희망 찬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매일 묵상집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회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이 기도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묵상집을 준비한 다락방의 스태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총회를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존비로 이 여정에 함께 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위원회 위원장 김 심슨 드림

흠 잡을 데 없는

시편 139:13-18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

저는 제가 집필한 책의 첫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 어릴 때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괴롭힘당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제 사진과 약력이 뒤표지에 실릴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마구 맴돕니다.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옷어야 할까, 아니면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할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때가 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곱게 차려입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 레이철이라는 점입니다. 호기심 많은 레이철, 충동적인 레이철, 하나님의 자녀 레이철.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 제 많은 결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재능과 능력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14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흠 잡을 데 없는 예술 작품을 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레이철 댄시(미국 미시간)

-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술 작품임을 상기시켜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찬양할 가치가 있다.
- **기도 포커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임을 상기시켜 주나요? 총회를 준비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께 소중함을 어떻게 상기시켜 줄 수 있나요?

폭풍 속에서

마태복음 8:23-27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제가 겨우 한 살일 때 우리 가족은 동파키스탄(현재의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서벵골로 이주했습니다. 난민인 우리는 7년 넘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놀고 있었는데 걱정이 된 언니가 안전을 위해 우리를 다시 텐트로 데려갔습니다.

텐트로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심한 강풍이 불던지, 우리는 텐트와 모든 소지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텐트를 잃어 살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며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텐트가 없어요. 이 텐트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저는 텐트 구석에서 밧줄을 붙잡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바람이 점차 약해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수보드 몬달(인도 델리)

-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 **기도 포커스** 난민을 위하여

묵상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답을 안하시는 것 같을 때, 무엇이 당신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열 사람의 기도

고린도전서 12:12-20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몇 년 전에 저는 제 삶에 뭔가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의미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신, 여러 잘못된 곳에서 성취감을 찾았고 결국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삶의 방식을 바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모임은 영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낀 공허함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결핍보다 힘과 독립심,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열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며, 집중을 방해하는 활동을 멀리했습니다. 설교와 묵상, 성서 구절이 제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연합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제게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새 목적을 주시고 제 삶에 빠진 것을 채워주시리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커시(미국 오하이오)

-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 **기도 포커스** 교회의 스테디 모임을 위하여

묵상 질문: 당신의 삶에서 기도가 큰 변화를 일으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총회 기간 중에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일정 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정말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4:4-24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우리 구역을 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화받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은 빨랫감과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제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4년간 지역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겠냐고 제게 물을 때, 제 대답은 “정말 ‘제가’ 하기 원하세요?”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터라 그런 자리에서 섬길 자격이 더욱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들이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물가의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완벽히 대변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싶다면 모든 마음이 가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는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족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혼란하고 불완전한 제 삶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나눕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킴벌리 라이스 스미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기도**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어찌 되었든 나를 사랑하십니다.
- **기도 포커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당신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나요? 현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부름 받고 있나요?

작은 선물

누가복음 11:1-13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4년 전에 은퇴하면서 손바느질로 만든 작고 둥근 쿠션을 선물로 받았습니. 대개는 그 쿠션을 장식용으로 의자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쿠션이 매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저는 척추 감압술을 받고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수술 부위인 허리의 상처가 불편해서 잠을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저에게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꼭 끼고 자라고 말했다. 저는 선물로 받은 그 작은 쿠션이 문득 생각나 처방대로 사용했습니다. 쿠션 덕분에 실제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하기는커녕 인식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그 작은 쿠션 덕분에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선물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롤랜드 링크(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과 매일 주시는 많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 **기도 포커스**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손과 발

4. 12
금요일

마태복음 25:31-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오늘 읽은 성서 구절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봉사 활동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매주 수요일에 지역 양로원에서 지내시는 94세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장작 난로에서 요리를 하는 등 젊은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시면 그것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96세에 예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의 음식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안아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교회 성도에게 생일 카드를 보낼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행동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며,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룩시 윌링(미국 앨라배마)

-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겠다.
- **기도 포커스** 우리 동네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나요?

받아들이기

요한복음 8:1-11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 8:10-11)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결점 있는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여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죄 지은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받아들으신 것입니다.

저지른 실수와 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혹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기에 우리도 수용이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골다 딜레마(필리핀 카비테)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주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 **기도 포커스** 내가 배제한 사람을 위하여

묵상 질문: 당신은 언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소중한 경험을 했나요? 이 경험으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조력자 군단

요한1서 3:16-18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의 친한 친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사람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집안의 가장인데 얼마나 더 일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고했습니다. 친구의 오랜 암 투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면 시간이나 에너지, 돈 등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은 돈을 모아 친구의 집세와 공과금을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가 화학요법을 받으러 다닐 때 차를 태워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진정한 조력자 군단이 이 가족의 짐을 지려고 나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친구의 쾌유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짐을 혼자 지라는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만 짊어지면 됩니다. 내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이 달라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면 짐 전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이 성취됩니다.

대프니 굿맨(미국 메릴랜드)

- **기도**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 **기도 포커스** 최근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총회 기간 중에 서로의 짐을 지어 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안전한 곳

시편 138:1-8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15)

저는 1950년대에 남자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학교는 엄격한 규율과 체벌 제도를 갖추고 군대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종종 학대 같은 체벌이 가해지곤 했습니다. 학내 괴롭힘이 만연했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학교에서 고통에 시달렸고, 필요하면 일단 대립을 피하고 익명의 존재가 되어 모습을 감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학교에서 낮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중 하나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안도하고 그 평온한 영향력과 도움을 즐겁게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일생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에 대해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 신성한 첫 만남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하네스 폰부흐(나이지리아)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학대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박해당하는 이들과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도, 보호를 얻을 수 있다.
- **기도 포커스** 괴롭힘을 가하거나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총회 기간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녀의 선물

마태복음 28:1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저는 손녀가 준 특별한 성탄 선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는 표제가 달린 자수 그림이었습니다. 손녀는 그 성서 구절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66년 전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영어를 조금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당시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학생 사역을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친절한 몇 마디에 마음을 열고는, 성적 때문에 걱정스럽고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저와 늘 함께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믿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서 더 많이 웃으며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험이나 과제를 준비할 때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실 테니까요.

저는 이런 기억을 떠올리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가 수놓은 성서 말씀이 오래전에 제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손녀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까지도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 모라위츠(미국 플로리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가족을 보살피며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 **기도 포커스** 조부모와 손주를 위하여

묵상 질문: 예수의 현존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에게 어떻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땀을 내렸다

시편 46:1-11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땀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 6:19)

남편 마이크와 저는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받으러 인근 마을에 들렀습니다. 진열된 새 안경테를 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금세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고 머리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혼잡한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가 손상되었을까?’ 스트레스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에 읽은 묵상 글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구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말씀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견고하게 땀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따뜻한 평안의 빛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땀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는 괜찮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에이프릴 매킨타이어(영국 잉글랜드)

-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의 폭풍우로 우리의 안전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땀을 내렸다.
- **기도 포커스** 낙상 후 회복 중인 사람을 위하여

묵상 질문: 스트레스를 받고 도전이 많이 될 때 어떤 성경 구절이나 영성 훈련이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두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나요?

창가에서 흔들는 손

요한계시록 3:14-21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늘 제 몫이었는데, 하원을 담당하는 남편보다 감정적으로 더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 집에 남겨지기를 싫어했고 아침에 눈물 바람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직장이 시내 반대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늘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에 한몫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서둘러 나와 제 차로 가는데 무언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저를 향해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몸짓이었고 제게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직장 동료에게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데려다주면서 선생님에게 전날 아들이 저를 웃게 해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이 몇 달간 매일 아침 그렇게 해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손을 흔들는 아들의 모습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눈여겨볼 겨를 없이 너무 서두르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신호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많으시고 사랑에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베카 켈런(미국 텍사스)

-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용서하소서. 인내하며 기다리주시고 무조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씩 찾아보겠다.
- **기도 포커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묵상 질문: 총회 기간 중에 당신은 종종 멈추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찾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베드로전서 5:1-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6-7)

저는 좋은 직장과 가족 그리고 도시 근교에 자리 잡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도로에 세워놓은 차에서 지내고, 추위와 도시의 불빛을 막으려고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고 자며, 공원 벤치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 집단의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었고, 저는 저를 받아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어쩌면 특히 노숙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숙 생활로 인해 마음이 겸손해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그러셨듯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걱정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제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돕는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등 봉사활동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주린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찾아가고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고 노숙인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브라이언 로저스(미국 매사추세츠)

- **기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도록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내가 소명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 **기도 포커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당신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을 어떻게 매일 실천하고 있나요?

소금의 힘

4. 20
토요일

골로새서 4:2-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

우리 교회 교인들 중 인근에 모여 사는 가정들은 동네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달 만나서 성경공부와 기도를 하고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근황을 묻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습니다. 한번은 제가 저녁식사로 닭고기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요리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대답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카레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맛이 없었습니다. 소금 넣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 세상의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나타냅니다.

나바마니 피터(인도 카르나타카)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기도 포커스** 이웃을 위하여

묵상 질문: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대하게 기도하기

마태복음 18:1-5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어린 딸이 턱까지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자장가를 불러준 뒤 매일 저녁에 하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싶니?”

딸은 잠시 입술을 오므리고 이마를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유니콘을 진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할래요.”라
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 즐겁고 굳세고 친잔난만한
믿음을 쉽게 잃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우주에 행성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유니콘
도 진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그런 기도를 할 만
한 믿음이 있다면, 저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크고 담대한 것을
구하는 믿음을 지니고 싶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이 치유나 화해를 선사하시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감히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본받아, 이제부터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레천 슬릭서(미국 애리조나)

- **기도** 하나님,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
하고자 하는 열의를 불러일으키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배짱을 주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오늘 나는 담대하게 기도할 것이다.
- **기도 포커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키우도록

묵상 질문: 당신은 총회를 위해 어떤 크고 과감한 기도를 할 것입니까?

별빛의 경이로움

4. 22
월요일

시편 19:1-4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몇 년 전, 아내와 저는 로키산맥에 오두막집을 빌려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별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에게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엄과 창조력 등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렬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뿜어내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행크 드그래프(미국 미시간)

- **기도**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물의 경이로움과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창조물에 깃든 아름다움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 **기도 포커스**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도록

묵상 질문: 앞으로 몇주간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내겠습니까?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12-16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면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모든 시련은 감당할 만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데 쓰이는 성서 구절을 잘못 해석해온 탓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흔히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이는 고통보다 유혹에 관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과 야고보서 1장 2절 같은 구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는 기뻐하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시련이 닥칠 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그 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 구절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브로닌 애슈턴 원처(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 **기도** 하늘 아버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내 시선이 집중할 곳은 하나님인가, 내 상황인가?
- **기도 포커스**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 질문 : 갈등이 생길 때,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또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과 격려를 경험합니까?

오늘의 독서, 묵상, 그리고 기도가 앞으로 있을 거룩한 회의를 준비하는 좋은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하며 생동력 있는 신앙의 탄력회복성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인들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제자를 만드는 창의적 사역에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관심 기울여 듣고, 기쁨과 슬픔을 동정심을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선교를 통해 공통점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이 다양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일치는 우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짐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kin-dom, 전통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주의적 의미가 강하기에 영어의 말을 바꾸어 킨덤, 즉 가족공동체라고도 한다. - 역자주)를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가 이 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하면서, 분리가 있는 곳에 이해와 치유를 추구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하는 모든 소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다락방은 총회 기간 내내 기도방(E222호)을 마련합니다. 다락방 팀이 이 기도방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글이나 말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총회 전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락방 발행인 김벌리 오 드림

<다락방>에 기고 하십시오.

<다락방>의 묵상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쓰고 기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 글을 쓰는 것을 돕기 위해 아래의 글 쓰기 안내를 보십시오.

- 묵상에는 단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만 쓰십시오.
- 당신이 듣고, 보고, 느끼고, 말한 것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쓰십시오.
- 당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경험에서 배운 영적 진실에 관해 성찰하십시오.
- 성경 본문, 짧은 성경 인용, 그리고 기도를 포함하십시오.

우리는 발행하기 전 일년 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묵상을 선택하게 되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다락방 묵상 원고는 다음으로 보내십시오.

이메일: ureditorial@upperroom.org

온라인: [Submissions.UpperRoom.org](https://www.upperroom.org/submissions)

연락처가 없이 접수된 묵상은 출판 자료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락방 소개

다락방(The Upper Room®)은 하나님을 보다 더 온전하게 알고 경험하기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후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글로벌 선교 사업입니다. 매일 묵상집으로 시작된 다락방은 연령이나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이 신앙과 섬김에 있어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출판, 프로그램, 기도 자료,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다락방은 영성 형성을 위한 깊은 사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에 새로운 생동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락방은 자료 판매, 참석자들의 비용, 기부금 등을 통해 1935년 이래 자급자족해 왔습니다. 다락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UpperRoom.org

기도와 준비를 위한 추가 자료들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락방> 매일 묵상을 통해 85년 넘도록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인쇄로 된 묵상집이나 디지털 묵상집 구독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UpperRoom.org/subscribe

서반아어, 한국어, 불어, 포르투갈어, 키스와힐리어로 된 다락방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다음을 보십시오: UpperRoom.org/international

영성훈련 아카데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창조된 세상과 연결되어 보다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 있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다음을 보십시오: www.Academy.UpperRoom.org

다른 자료들은 총회 전시관에서 다락방의 부스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UpperRoom.org/umc2024